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5.20.(화)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766만 소상공인 · 자영업자와 동행’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 소상공인위원회 주최, 민주당-소상공인 13개 단체와 맞손·정책협약 10건·전달 3건 체결

- 외식, 부동산, PC카페, 생활물류, 인쇄, 장례, 주얼리 분야 등 다양한 업종 단체 참여
- 오세희 위원장 “정책 협약은 민주당의 약속, 현장의 제안은 각 업종이 겪는 현실…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

2025년 5월 20일 (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위원회 산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오세희)는 5월 20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중앙선대위 소상공인위원회 주최로 업종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동산, 생활물류부터 인쇄, 장례, 주얼리 분야까지 총 13개 업종의 대표 단체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금실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김성한 정책본부장, 권철승 먹사니즘위원장이 참석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각 단체와의 정책 협약에 함께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소공인진흥협회(곽의택 회장),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김종철 이사장),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봉승 회장),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성철현 회장), △한국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협동조합(김만연 이사장),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손수호 회장)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최영균 회장)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이동희 이사장), △한국비즈니스코칭산업협동조합(김영채 이사장), △한국장례협동조합연합회(김종선 회

장) 등 10개 단체가 정책 협약에 참여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김우석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조진호 부회장), △한국인터넷 PC카페협동조합(김기홍 이사장)은 정책 제안 형식으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강금실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될 일과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협과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정치의 자세이며, 오늘 협약식이 그런 소통과 실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은 “1분기 자영업 폐업이 20만 건을 넘고, 연간 100만 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통계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민생을 살리는 일이며, 골목상권과 내수를 회복시키는 것이 다음 정부의 중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성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성장의 기반은 곧 민생에 있다”며 “정부가 낙수 효과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필요한 곳에 정책과 자원을 투입해 흐름을 만들어줘야 하고, 민주당은 각 업종의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철승 먹사니즘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제도를 집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을 준비한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오늘 협약은 업종별 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을 직접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할 시점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앞으로도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 이행 과정을 점검해 제안된 과제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끝/.

붙임1. 정책협약식 사진

